

만남

2015 1월
통권 120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매번 새로워져야 하는
매번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자리가 두렵다
하지만
감사해야 할 일이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신부님 칼럼	말씀의 실천 —————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자연 숭배의 어리석음(지혜 13, 1-6) —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86~88 -----	7
가정 교회	아버지의 기도 2 -----	11
찬 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	12
공동체 소식	-----	13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17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18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19
미사안내	-----	20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 평화 증진

다양한 종교 전통에 속한 이들과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협력하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봉헌 생활

봉헌 생활의 해인 올해에 수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을 다시 찾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데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기도합니다.

2015년 1월 칼럼글

새로운 한 해.

말씀의 실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 셧다.” (요한 1,1)

2015년 “을미년 (乙未年)” 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한해의 마지막 날을 제일(除日), 마지막 밤을 제야(除夜)라고 합니다.

한자말 ‘제(除)’ 는 ‘섬돌’, ‘길’, ‘깨끗이 하다’, ‘버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除日)은 ‘새해가 발돋움하는 날’ 이라는 의미와 ‘새 해를 맞이하는 길목’ 이라는 의미, 묶은 해를 깨끗이 치우고 비운 자리에 새해가 솟아오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갑오년 (甲午年)을 보내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가족들 중 많은 분들이 성서를 쓰느라고 ‘말씀’ 과 함께 살았습니다.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이 한해에도 영속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은 육화(肉化)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 이 활자나 성경(聖經) 속에 갇혀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말씀’ 이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의 세계 속에 갇혀있게 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복음사가 요한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1,14)고 증언합니다.

저와 우리는 ‘말씀’ 이 성경(聖經)이나 활자 또는 디지털의 세계 속에 갇혀있지 않고 육화(肉化)되어 현실로 나타나도록 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말씀’ 의 육화(肉化)를 위해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루카 1,38)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이번 한 해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과 더불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자연 숭배의 어리석음(지혜 13, 1-6)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장 ‘주 하느님 크시도다’ 1절 노래하겠습니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세관장 자캐오의 집에 머무시기를 먼저 원하신 주님,
이 자리 저희에게도 머물러 주소서.
-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도 타오르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어느 분이 지혜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무리나 거친 물, 하늘의 빗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한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 거대한 산이나 바위, 나무 또는 천체의 변화 등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그것에 압도당한 경험이나 그것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노래(기도)를 해 본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힘이 센 동물이나 물질에 영적인 힘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토테미즘(totemism, 물신숭배)이라고 합니다. 자연 속의 잡다한 정령이나 신령한 영적 존재를 숭배하는 것을 애니미즘(animism, 정령숭배)이라고 합니다. 또한 잡신이나 우상을 직접 만들어 숭배하거나, 도술적인 힘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을 샤머니즘(shamanism, 무속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원시종교들은 인간 이상의 어떤 힘에 의지하려는 인간 본능에서 나온 것이지 신앙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종교심 차원에만 머물게 되면 성숙한 신앙심이 자라지 못하고 미신적인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요즘 세상에도 이러한 종교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미신의 구별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와 ‘어떻게 믿는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신앙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며 내어 주시는 동시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인간에게 당신 말씀을 통하여 풍요한 빛을 주시는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무슨 일이든

자기 뜻을 이루어 줄 신적인 존재를 찾으며, 자신보다 힘이 센 존재에 기대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신은 자기중심적이며 현세의 이익과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지만 참된 신앙은 스스로 신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따르려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은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합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장 ‘찬양하라’ 노래하겠습니다.



교리86

성경 길잡이 (55)

루카 복음서

루카 복음서는 사도행전을 포함해 두 부분으로 된 작품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목적은 동일한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파괴 후, 80년과 90년 사이에 그리스도 복음을 바오로와 다른 전도자들이 지중해 전역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대다수는 부유한 계층의 비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가 유다교에 기원을 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는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실과 유다교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심각한 좌절을 겪었던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교 신앙이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었다면 어째서 많은 유대인이 배척했을까? 왜 이제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보다 이교도 출신 그리스도인이 숫자상으로 더 많아졌을까? 정말로 그리스도교가 참된 종교이며 실제로 하느님께로부터 유래했을까? 루카는 이교도 출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구약성경을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예언으로 간주했으며 신실한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즉, 유년 사회에 나오는 시메온과 한나에서 시작하여 세례자 요한과 그리스도 공생활 중에 등장하는 많은 다른 사람을 거쳐 성령강림 때 삼천 명의 신자들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경을 참되게 이해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루카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며, 가난한 이들과 비천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고대 사회에서 흔히 이류 시민으로 취급되었던 여성의 품위를 인정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서는 자비로우시며 기대할 수 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으로 방탕한 아들을 다시 받아 주시는 아버지라고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평화와 구원을 베푸신다, 더 나아가 그 분은 그 용

서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도 베풀어지기를 기도하신다. 그래서 그 분은 당신의 옆 십자가에 못 박힌 회개한 죄인에게 낙원을 약속하신다.” 라고 선포합니다.

교리87

성경 길잡이 (56)

루카 복음서 2

루카 복음서의 본문은 갈릴래아에서의 그리스도의 공생활로 시작됩니다. 루카는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 제자들과의 관계를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지혜로우시고 강력한 힘을 지닌 구세주로서 기교 있게 묘사한 그분의 모습을 그려 넣습니다. 그러나 루카는 복음서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래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가는 여정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을 통해, 루카는 어쩌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당신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다시 등 돌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분을 믿으라고 권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엮어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당신 적들과 맞닥뜨리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측은해 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며 심지어 성전에 바치는 가난한 과부의 봉헌조차 인정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향해 이끌려 가실 때조차 사랑으로 하는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루카에 의한 그리스도의 수난사는 예수님의 자비와 관대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대사제의 종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의 존재로 빌라도와 헤로데 안티파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골고타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당신 제자들을 친절히 믿

음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들에게 당신을 증언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으로서 성령을 당신 제자들에게 보내 주시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읽기 - 루카 복음서

1-2장: 유년사화.

15장: 하느님의 용서에 관한 세 개의 아름다운 비유

24장: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현에 대한 이야기

교리88

성경 길잡이 (57)

요한 복음서

요한 복음서의 머리글은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신앙고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 편에는 예수님에 관한 풍부한 자료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코데모,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있고, 태어나면 서부터 눈먼 사람의 치유와 라자로의 부활과 같은 극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사건, 지침은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며,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제시하는 가운데 특히 중요한 성체성사, 그와 연관된 교회의 성사 생활을 시사합니다. 영광 편은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접근합니다. 즉, 예수님을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다스리는 강력하고 위엄 있는 분으로 드러내 보여 줍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 때에 사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예수로서는 물론, 영원한 그리스도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와 성령께 결합됩니다. 예수님이 적들에게 체포되시지만 그것은 오직 그분이 허락하시기 때문일 뿐입니다. 빌라도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품위와 권위가 드러나

다. 그분은 오직 예언이 성취되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당신의 영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사도들에게 성령과 용성의 성사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주님이시요 하느님이시라는 고백을 받고 당신 교회의 미래에 함께 하십니다.

맺음말은 일찌감치 복음서에 첨가된 것으로 줄곧 영감에 따라 기록된 내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상징적 의미로 가측한 그 맺음말은 당신 교회를 조성하시고 베드로에게 목자로서의 위치를 되찾아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는 소문이 정확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의미에 대한 교회의 깊은 사색의 결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 복음서에는 많은 의미가 겹겹으로 쌓여 있기에 그 복잡한 사상과 예술적 전개, 조심스럽게 구성된 대화의 진가를 파악하려면, 좋은 주석서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읽기 - 요한 복음서

6장: 성제성사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심에 대한 교회의 신앙에 대한 진술.

17장: 제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기도.

20장: 요한의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 상황,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한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토마스의 신앙고백이 어째서 실제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앙고백이 되는지 주목하십시오.

비안네 신부

아버지의 기도 2

일치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가정을 축성하시어
 인간 세상의 작은 교회를 가정으로 시작하셨으니
 당신 지체들이 이룬 이 가정에
 당신 친히 주인이 되어 주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성찬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음을
 찬미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이 가정의 사제직을 맡은 저로 하여금
 모든 것에 앞서 당신을 섬기며
 가족들을 당신께로 이끄는
 충실한 가장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말과 행위로써 사랑을 보여 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창세 22, 13)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34

L. Sandell / O. Ahnfelt



1. 날 마 다 숨 쉬는순간 마 다 내 앞 에 어 려운 일 보 네 주 님
2. 날 마 다 주 님 내 곁 에 계 셔 자 비 로 날 감 싸 주 시 네 주 님
3. 인 생 의 어 려운순간 마 다 주의 약 속 생 각 해 보 네 내 맘



앞 에 이 몸 을 말 길 때 슬 픔 없 네 두 려 움 없 네 주 님
앞 에 이 몸 을 말 길 때 힘 주 시 네 위 로 하 시 네 어 린
속 에 믿 음 잃 지 않 고 말 씀 속 에 위 로 를 얻 네 주 님



의 그 자 비 로 운 손 길 항 상 좋 은 것 주 시 도 다 사 랑
나 를 품 에 안 으 시 고 항 상 평 화 를 주 시 도 다 내 가
의 도 우 심 바 라 보 며 모 든 어 려 움 이 기 도 다 흘 러



스 레 아 픔 과 기쁨 을 수 고 와 평 화 와 안 식 을
살 아 숨 을 쉬 는 동 안 살 피 신 다 약 속 하 셸 네
가 는 순 간 순 간 마 다 주 님 약 속 새 겨 보 니 다

❖ 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1일	아 네 스 (St. Agnes)	유곡지 김잔디 정진아 김혜원 정인실	27일	안 젤 라	남 창 순 최 희 주
			28일	카로리네 (St. Karoline) 토마스 아퀴나스 (St. Thomas Aquina)	김 계 희 백 정 선
			31일	요한 보스코 (St. John Bosco)	강 석 길

❖ 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 리 아	이복심(B) 신유민(H)	19일	마 리 오	김형철(O)
5일	시 메 온	김석주(H)		비 아	조은정(B)
8일		Giersberg Sigrid(O)	21일	아 네 스 (St. Agnes)	강나래(H) 정순자(H) 김혜경(O)
17일	안토니오 셀리아	문철주(H) 김신자(H)	27일	안 젤 라 (St. Angela Merici)	김영희(H)
18일	크리스티나	김미영(O)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St. Thomas Aquina)	고관완(B)
			29일	바 오 로	이범이(H)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1월 4일	✠ 문명숙 마리아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월 18일	✠ 전성숙 안젤라	
1월 23일	✠ Franz, Karl-Heinz	
1월 27일	✠ 박태덕 수산나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14일	
계(€)	251.06	196	235.77	

❖ 1월 성가번호

1월	입 당	봉 헌	마 침
1일	251	211	249
4일	487	217	100
11일	1	220	64
18일	31	219	49
25일	431	218	34

❖ 1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1일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젼마)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봉사자
4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네스)	김매자(베로니카) 김애란(세실리아)	김진호(프란치스코) 곽케빈(요셉)	1구역
11일	박귀동(토마) 이선주(로사)	윤예진(모니카) 김잔디(아네스)	주일학교 복사단	2구역
18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김진호(프란치스코) 이정수(토마스)	3구역
25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최장용(레오) 이현묵(요셉)	4구역

❖ 자진헌납금 ❖

11월 30일 - 12월 14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김형웅, 김부남, 강신행, 손대조, 손수희, 우동천, 육종인, 이경규, 이공종, 이기열,
이수웅, 이영희, 이종화, 이정수, 이석우, 이철우, 이현묵, 이종지, 정마리아, 진윤희,
최순남, 민경화, 권지연, 서세원, 최장용, 임정희, 배성우, 박종래, 박춘실, 박성아,
심동근, 정정숙, 현영애, 윤예진, 한말조

구좌입금 : 김치수, 김대현, 김진호, 김유석, 김동수, 강일남, 곽케빈, 백정선, 허길조,
허두욱, 허채열, 남궁춘배, 최성자, 최화영, 최순남, 최현봉, 윤용기, 오옥수, 방영자,
서유미, 이영원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국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1월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신정(新正)입니다. 15:00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대축일 미사가 봉헌되며, 미사 후 떡국을 대접합니다.
2. 소공동체 모임은 2주간부터 시작되며, 이번 달 소공동체는 각 구역장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번 달 지방 공동체의 소공동체를 방문하십니다.
3. 예비자 김보경 자매님, 김경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알림
 - 1) 브레멘: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0421 / 25 51 62
 - 2) 휘스백: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04445 / 24 31
2.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 힘써 주신 신부님과 공동체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늘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3. 브레멘 공동체 미사는 매 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에 시작합니다.
성가연습과 미사 준비를 위해 모두들 16시 30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미사 후 전례교리가 있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2월 정기미사는 12월 13일, 대림 제 3 주일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1년간 음식 봉사에 수고하신 자매님들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이 날은 음식을 주문하여 나눔의 잔치를 하였습니다.
2. 12월 29일(월) 17:00시에 설윤자 헬레나 자매님 가정에서 송년 기도모임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소공동체 모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8903264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웅 야고보		6310912
			총 무	김 정 자 잼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5년 1월 ❖

일	요일	축 일	단체 행사	비 고
1	목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신정	15:00 예수 성심 성당	떡국, 사목협의회
2	금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학자 기념일		
3	토	주님 공현 전 토요일		브레멘 공동체 미사
4	일	주님 공현 대축일	사목협의회	
5	월	주님 공현 후 월요일 소한		
6	화			
7	수			
8	목		꾸리아	
9	금		1구역 소공동체	
10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1	일	주님 세례 축일	청년 소공동체	
12	월	연중 제1주간 월요일		
13	화			
14	수			
15	목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6	금		2구역 소공동체	
17	토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하노버 공동체 미사
18	일	연중 제2주일 일치주간		
19	월			
20	화	대한		
21	수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		
22	목			
23	금		3구역 소공동체	
24	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25	일	연중 제3주일		
26	월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27	화			
28	수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29	목		연령회	
30	금		4구역 소공동체	
31	토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아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viannae@hanmail.net
본당신부님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76 3900 7430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 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